

#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mmunity Reading Campaigns: 'The Big Read' in the U.S.A.

윤 정 옥(Cheong-Ok Yoon)\*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The Big Read의 주요한 특성 |
| II. 미국 국민의 독서 실태          | 1. The Big Read의 배경       |
| 1. Reading at Risk        | 2. The Big Read의 특성       |
| 2. To Read or Not to Read | IV. 맺음말                   |
| 3. Reading on the Rise    |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국립예술지원기금이 지원하는 지역사회 독서운동인 The Big Read(TBR)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TBR은 미국 국민의 문학 독서율의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9년까지 오백여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성장하였다. TBR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연방정부 기금 및 다양한 재단, 기관,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확보한 막대한 재정의 투입, 둘째, 도서관을 독서운동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인정, 셋째, 'One Book, One Community' 지역사회 독서운동 모형의 활용, 넷째, 고급의 표준적 독서 활동 자원의 제공.

키워드: 지역사회 독서운동, 문학 독서, 공공도서관, 미국 국립예술지원기금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g Read(TBR)' reading initiatives sponsored by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in the U.S.A. TBR was originally launched to improve the seriously low level of literary reading among the American adults reported in several NEA reports, and spread to more than 500 communitie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BR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 massive investment of federal funds as well as various private and corporate donations; Second, the strong recognition of libraries as the core of reading activities in communities; Third, the adoption of the model of 'One Book, One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Fourth,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resources for reading activities.

Keywords: Community Reading Campaign, Literary Reading, Public Libraries, The Big Rea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09년 5월 17일 • 최종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 I. 머리말

최근 발행된 미국의 국립예술지원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라 부름)의 보고서<sup>1)</sup>는 미국 국민의 독서율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NEA가 지난 1982년부터 다섯 차례 수행한 미국 국민의 문화생활 참여도 서베이에서 2008년 처음으로 미국 성인의 독서율이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서베이 시점에서 지난 일 년 동안 문학작품을 읽은 사람들의 비율과 절대적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문학 독서율도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4년 동일한 서베이에 기반한 보고서인 “위기에 처한 독서(Reading at Risk: A Survey of Literary Reading in America)”에서 미국의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에서 하락률이 급격함을 보고하였던 것에 비하여 불과 사년 만에 역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NEA는 2004년 당시 미국 성인의 독서율이 저조한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에서 그 하락률이 급격함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위기”를 인식하였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The Big Read(이하 TBR이라고도 부름)란 이름의 대중 독서운동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의 고등학생 시절을 NE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학적 이니셔티브의 목표로 삼아 이를 추진하였다.<sup>2)</sup> 그 이후 불과 사년 만에 독서율이 증가하였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반드시 The Big Read가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The Big Read를 추진하면서 미국 전역에 독서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독서를 권장하는 동시에 독서가 가능한 기반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자극을 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The Big Read는 1998년 미국 시애틀 시에서 시작된 ‘One Book, One Community’(이하 ‘One Book’이라 부름) 형식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크고 작은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선택하여 그 책을 읽고 토론하며, 그 책과 책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기존의 ‘One Book’ 운동이 각 지역사회마다 고유하게 책을 선정하였던 것에 비하여, The Big Read는 미국 문학의 고전의 반열에 올라선 주요한 책, 혹은 비교적 근간이지만 뛰어나다고 평가된 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가운데 책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The Big Read는 독서운동을 위해 선발된 지역사회에 독서운동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책의 선정부터 프로그램의 진행과 홍보까지 독서운동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표준적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사회

1)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eading on the Rise: A New Chapter in American Literacy*, January 2009, <<http://www.arts.gov/research/ReadingonRise.pdf>> [cited 2009, 4. 20].

2) 상계서, p.1.

는 순수한 독서 및 독서 관련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책의 독서와 토론 지침, 교사들을 위한 학생 독서지도 지침, 홍보 자료 등 어디에서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각 지역사회는 그 밖에 자체적 요구와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The Big Read가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으로서 갖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TBR이 독서율의 향상과 독서인구의 증가 및 독서문화의 정착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2006년 첫 시범사업 이후 불과 삼년 사이에 미국 전역의 5백여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적어도 문학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온 이런 형태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 발전에 참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NEA의 The Big Read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블로그의 자료, 각종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조사하는 동시에 The New York Times, Los Angeles Times, Chicago Tribune 등 미국의 주요한 일간지 수록 기사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로써, The Big Read가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으로서 갖는 목표, 기능,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는 한편, 도서관계, 학계나 언론계 등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미국 국민의 독서 실태

The Big Read는 미국 NEA가 지난 1982년부터 미국의 성인 대중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동향을 조사해 왔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NEA의 이 서베이(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Arts. 이하 SPPA라 부름)는 미국 성인들이 음악회, 연극, 무용공연과 같은 실황 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미술관, 박물관을 방문하고, 문학을 읽는 사람들의 수와 비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방송과 녹음매체를 통한 예술 활동 참여, 인터넷, 사진 찍기나 합창단 참여와 같은 개인적 참여 등을 조사하고, 이러한 예술 활동 참여에서의 인구통계적 및 지리적 격차를 분석해 왔다.<sup>3)</sup> 2002년 SPPA는 18세 이상의 성인 17,13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함으로써 미국인구조사국(U.S. Bureau of the Census)의 최신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를 보충하며 70% 정도의 응답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17,000명을 조사하여 82%의 응답률을 달성하였다.<sup>4)</sup> SPPA에서는 문

3) 2008년 서베이 보고서의 전문은 아직 볼 수 없으며, 2002년 서베이는 볼 수 있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March 2004, "2002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Research Division Report: 45), <<http://www.nea.gov/research/NEASurvey2004.pdf>> [cited 2009. 4. 21].

4)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January 2009, 전게서, p.11.

학(Literature) 항목은 희곡/시/소설/단편, 창작글쓰기, 책읽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NEA는 특히 이러한 문학 활동 참여의 연도별 추이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성인대중의 독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책을 읽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특별히 그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NEA가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Reading at Risk”<sup>5)</sup> 혹은 “To Read or Not to Read”<sup>6)</sup>와 같은 일련의 보고서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보고서는 미국 국민의 독서율 및 독서능력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고, 특히 비디오게임, 휴대전화, iPod, 랩탑 및 각종 전자기기, 그리고 광범한 전자오락매체와 커뮤니케이션 선택권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자라나는 첫 번째 세대인 청소년에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들 주요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1. Reading at Risk

2004년 발간된 “Reading at Risk”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사이에 문학작품(literature)을 읽는 미국 성인들의 비율이 대단히 줄어들었고, 이러한 저하는 전반적인 독서율 하락과도 병행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문학 독서의 하락률은 가속화되는 추세로서,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모든 인종 집단, 모든 연령 집단, 그리고 모든 교육수준의 집단에서 동일하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는 가장 급격하게 하락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사이에 모든 연령층에서 독서율이 18% 하락하였는데, 18-24세 연령 집단에서는 28%가 하락하여 전체 성인집단보다 55% 높은 하락율을 보여주었다. 1982년에 전체 성인 가운데 문학 독서자의 비율 및 절대 인원수는 56.9%(9,600만 명)였으나, 1992년에는 54.0%(1,000만 명), 2002년에는 46.7%(9,600만 명)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학 독서의 하락은 문화 및 시민 참여의 쇠퇴를 예시하며, 독서의 하락은 인터넷, 비디오게임, 휴대용 디지털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독서는 다른 형태의 적극적 시민 활동 참여와 강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자들보다 텔레비전을 보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에, 문학 독자들은 자원봉사 및 구호활동에 참여, 미술관 방문, 실황 예술행사 참여 및 스포츠 행사 참여의 비율이 높았다.

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eading at Risk: A Survey of Literary Reading in America*. (Research Division Report: 46),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June 2004), <<http://www.arts.gov/research/ReadingAtRisk.pdf>> [cited 2009. 4. 20].

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o Read or Not to Read: A Question of National Consequences*. (Research: 45),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ovember 2007), <<http://www.arts.gov/research/ToRead.pdf>> [cited 2009. 4. 22].

한편 가정에서는 1990년에 전체 여가 지출(recreational spending)의 5.7%를 책 구입에 사용하고, 6%를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에 지출하였던 반면, 2002년에는 책 구입에는 5.4%, 전자적 소비에는 24%가 지출되었다. 또한 1999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들은 평균 2.9대의 텔레비전, 1.8대의 VCR, 3.1대의 라디오, 2.1대의 CD 플레이어, 1.4대의 비디오게임플레이어와 1대의 컴퓨터로 채워진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sup>7)</sup> 전체적으로 주요한 발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문학을 읽는 미국 성인의 비율은 지난 20년 사이에 현저히 감소하였고, 문학 독서의 감소는 전체적 독서의 감소와 병행하고 있다.
- 문학 독서의 감소율은 가속화되고 있다. 독서율은 1982년을 기준으로 1992년 5% 감소한 것이고, 2002년에는 14%가 감소한 것이다.
- 여성은 남성보다 문학을 많이 읽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문학 독서는 상당 정도 감소하였다. 1982년 남성은 49.1%, 여성은 63.0%가 문학 독서를 했지만, 2002년 남성은 36.1%, 여성은 55.1%로 각각 감소하였다.
- 문학 독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집단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다. 1982년 백인은 59.8%, 흑인은 42.3%, 히스패닉은 36.4%가 독서하였으나, 2002년 백인은 51.4%, 흑인은 37.1%, 히스패닉은 26.5%로 각각 감소하였다.
- 문학 독서는 모든 교육수준 집단 및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감소하였고, 가장 급격한 감소는 가장 젊은 연령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 2. To Read or Not to Read

2007년 발간된 “To Read or Not to Read”는 SPPA 및 미국 교육통계센터에서 나온 통계보고서를 포함하여 연방정부기관, 대학, 재단 및 협회 등 이십여 곳에서 나온 독서 동향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985년부터 2005년 사이 특히 청소년의 독서율과 독서능력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고, 무엇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독서하는 데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독해능력이 점차 감퇴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하락은 심각한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여가를 위한 독서 및 독해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나은 학업, 직업 및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독서 및 독해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정시설에 들어가거나 사회보장 등에 의존하여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점점 더 적은 책을 읽는데, 특히 18-24세 사이의 미국 성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즐거움(pleasure)을 위해서 책을 읽지 않았고, 십대의 활동에서 독서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17세 연령층에서 지난 20년 사이에 학교 과제 이외로는 즐거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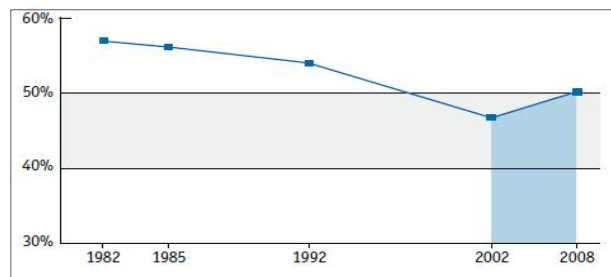
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June 2004, 전제서, p.xiii.

위해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배가되어, 1984년에 9%였던 것이 2004년에는 19%가 되었다. 반면에 매일 책을 읽는 청소년은 31%에서 22%로 감소하였다.<sup>8)</sup> 전체적으로 주요한 발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젊은 성인층은 일반적으로 책을 더 적게 읽고 있으며, 독서는 십대의 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 대학 재학은 더 이상 적극적 독서 습관을 보장하지 않는다.
-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은 다른 연령층 사람들보다 독서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 사람들은 독서할 때도, 독서는 다른 매체와 경쟁을 하며, 이러한 동시작업은 텍스트에 대한 몰입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 미국 가정은 지난 20년 사이에 거의 그 어느 때보다 책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였다.
- 문학 독자들은 문화 및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훌륭한 시민이 된다.

### 3. Reading on the Rise

NEA가 2009년 발표한 “Reading on the Rise”는 “Reading at Risk” 이후 미국 성인의 독서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sup>9)</sup>은 2008년 18,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SPPA에 근거하여 1982년 이후 지금까지의 문학 독서율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 독서(literary reading)는 “인쇄형 혹은 온라인으로 소설, 단편, 시 혹은 희곡 등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림 1>은 1982년 이후 다섯 차례 수행된 조사에서 2002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문학 독서율이 2008년에 처음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학 독서율은 2002년 46.7%에서 2008년 50.2%로 증가하였고, 미국 성인인구의 절반 이상, 즉 일억 일천 삼백만 명 정도가 지난 일 년 동안에 문학 독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미국 성인의 문학 독서율 : 1982-2008

8)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ovember 2007, 전계서, p.7.

9) 상계서, p.2.

〈표 1〉 미국 성인의 문학 독서율 연도별 증감

연 도	1982	1992	2002	2008
%	56.9%	54.0%	46.7%	50.2%
독자 수	8,560만	10,030백만	9,620만	11,280만
% 변화	--	-2.9pp	-7.3pp	+3.5pp
수 변화		+470만	-410만	1,660만

이 보고서의 주요한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 NEA가 정기적으로 성인의 예술 활동 참여를 조사한 26년 만에 처음으로 문학 독서가 증가하였다: 처음으로 문학작품을 읽는 성인의 전체 비율이 2002년 46.7%에서 50.2%로 증가하였다.
- 문학 독자의 절대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2008년에 1,66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문학 독자가 생겨났고, 문학 독자의 절대 수는 서베이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새로운 독자의 증가는 전체 인구증가율과 결합하여 더 높아진 성인 독서율을 반영하였다.
- 독자의 새로운 증가는 지난 이십 년 간의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고 있다: 성인들 가운데 문학 독서율은 전체적으로 7% 증가하였다. 2008년의 증가는 두 차례의 최근 십년간 서베이 기간(1982-1992, 1992-2002)에 나타난 심각한 독서율 하락을 뒤따른다.
- 문학 독서는 가장 젊은 성인 집단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다: 18-24세 사이 청년층의 문학 독서율이 9%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340만 명 정도의 독서 인구가 새로 늘어남을 의미한다. 2002년에는 동 연령층의 독서율이 서베이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저하함을 보여주었다.

〈표 2〉 미국 청년층의 문학 독서율 연도별 증감

연 도	1982	1992	2002	2008
%	59.8%	53.3%	42.8%	51.7%
% 변화	--	-6.5pp	-10.5pp	+8.9pp
변화율	--	-11%	-20%	+21%

-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문학 독서가 증가하였다: 지난 6년 간, 젊은 성인층(18-44세)에서 독서율이 유례없이 증가하였다. 이 연령 집단은 이전 서베이에서 상당한 독서율 하락을 보고하였고, 1982년에서 2002년 사이에 그 감소율은 24.2%에 달했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45-54세층만이 유일하게 독서율이 감소하였다(-3%).
- 백인, 흑인 및 히스패닉 집단에서 모두 문학 독서가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특히 히스패닉 집단에서 급격한 독서 증가율(+20%)을 보였고, 그럼에도 아직 다른 인종집단보다는 독서율이 낮은 형편이다. 흑인 집단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5% 증가하였고, 백인 집단에서는 8%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2호)

증가하였다.

- 서베이 역사 상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모두 독서율이 증가하였다: 남성의 독서율은 1982년-2002년 사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2년-2008년 사이에 11% 증가했다.
- 문학 독서는 모든 교육수준 집단에서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대학 졸업 이상)은 가장 높은 독서율(2008년 68.1%)을 보였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았거나(+47%) 약간의 대학 교육을 받은 집단(+6%)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성인 문학 독자가 증가한 것은 소설 읽기가 더욱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2008년 모든 성인의 거의 절반(47.0%)이 소설(장편 혹은 단편)을 읽었다. 시와 드라마 읽기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책 읽는 사람의 절대 수는 증가하였으나, 미국 성인 인구 전체에 대한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표 3<sup>10)</sup> 참조): “책 읽기(Book reading)”는 여기에서 업무나 학교에서 요구되지 않은 어떤(반드시 “문학(literary)”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2008년 사이에 책 읽는 성인의 절대 수는 350만 명 정도 늘어났고, 이는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표 3〉 업무나 학교에서 요구되지 않는 책을 읽는 성인의 비율

연 도	2002	2008	2002-2008	
			변화	변화율
모든 성인	56.6%	54.3%	-2.3pp	-4%
18-24세	52.0%	50.7%	-1.3pp	-3%
25-34세	58.9%	54.1%	-4.8pp	-8%
35-44세	59.0%	56.2%	-2.8pp	-5%
45-54세	60.7%	54.2%	-6.5pp	-11%
55-64세	57.5%	58.4%	+0.9pp	+2%
65-74세	53.8%	54.5%	+0.7pp	+1%
75세 이상	44.3%	47.4%	+3.1pp	+7%

- 대부분의 온라인 독자는 또한 책을 읽는다: 온라인으로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문학(소설, 시, 혹은 드라마)을 읽는 성인의 84%는 인쇄로나 온라인으로 또한 책을 읽는다. 온라인 기사, 에세이, 블로그 등을 읽는 성인 가운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17%이다. 2008년에 미국 성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문학을 읽는 사람은 거의 17%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온라인으로 읽는 비율은 줄어든다.
- 미국 성인 인구는 지금 거의 동등한 규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절반을 약간 넘는 미국 성인이 문학을 읽거나 책을 읽는다(그림 3 참조). 독

10)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January 2009, 전게서, p.7.



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개인적 및 사회적 행태 패턴의 중요한 지표이며, 독서 경향은 보다 폭넓은 교육적, 문화적 및 시민적 참여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 2〉 미국 성인의 독서 인구 비율

상기한 바와 같이 세 편의 보고서에서 그 추이를 살펴본 미국 성인의 독서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독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북 섹션 편집자(book editor)인 울린은 과연 독서에 관한 한 “문화적 모퉁이(cultural corner)”를 돌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up>11)</sup> 그는 그 답은 처음부터 “독서” 자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는 독서란 것이 실제로 그렇게 위기에 처해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2002년 서베이에서 보고된 책 읽는 사람 9,600만 명을 과연 적다고 해야 하는가 물었다. 또한 2008년에 처음으로 온라인 독서를 포함시켰고, 사람들의 독서 대상에서 논픽션을 제외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하였다. 주요한 논픽션 작가들의 저작을 “비문학(not literature)” 범주에 넣음으로써, 문학 독서는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는 “엘리트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82년 이래 200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율을 보였던 독서율이 2008년 조사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며, 그 사이에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어떤 자극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먼저 특히 청소년의 독서율 및 독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정부, 학교, 가정과 사회가 다 같이 개입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또한 2000년대 초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One Book’과 같은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을 통해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책을 읽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더욱이 심지어 공중과 텔레비전의 ‘오프라 윈프리쇼’와 같은 대중오락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책을 읽자는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인(動因)과 더불어 크게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NEA가 추진한 TBR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1) Ulin, David L, “The NEA’s Take on Reading,” *Los Angeles Times*(January 13, 2009).

12)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July 2006. *Reading at Risk: The State Response to the Crisis in Adolescent Literacy: The Report of the NBASE Study Group on Middle and High School Literacy Group* Revised ed. Alexandria (Virginia: NASBE, January 13, 2009).

### Ⅲ. The Big Read의 주요한 특성

#### 1. The Big Read의 배경

TBR은 미국의회가 1965년 설립한 연방정부의 독립기구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예술지원기금을 제공하고 있는<sup>13)</sup> NEA가 “미국 문화의 중심에 독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 지원사업이다. NEA는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파트너로 하고, Arts Midwest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BR은 앞서 언급한 NEA의 2004년 보고서 “Reading at Risk”에서 미국에서 문학 독서가 모든 집단에서 급속히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그 하락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서 처음 시작되었다. TBR의 시범사업은 2006년에 4권의 책을 대상으로 열 개의 지역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 전국적으로 출범한 이래,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 TBR에는 208개 지역사회가 참여하였고,<sup>14)</sup> 2009년 현재까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및 미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서 모두 533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sup>15)</sup>

TBR은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자아계발을 위한 독서(reading for pleasure and enlightenment)”를 장려하기 위해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BR은 선정된 도시와 마을에서 혁신적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고, 고전문학을 논하는 데 필요한 광범한 자원을 제공하며, 의욕적인 전국적 홍보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광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진행되는 ‘One Book’ 독서운동의 명부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웹사이트<sup>16)</sup>를 보면, 2006년 이후부터 명부에서 TBR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들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의 노쓰 애틀버러(North Attleborough)는 지역의 리처드기념도서관이 주관하여 2005년부터 매년 “Books Open Doors”라는 이름의 독서운동을 진행하며 책을 읽어 왔는데, 2008년에는 TBR에 참여하여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었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에 “Westwood Reads”라는 독서운동을 진행했던 웨스트우드(Westwood)도 2007년에는 TBR로서 Fitzgerald의 ‘위대한 개츠비’를 읽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지

1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Brochure)*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December 2008).

14)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About Big Read.”  
<<http://www.neabigread.org/about.php>> [cited 2009. 4. 20].

1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History/Overview of Big Read.”  
<[http://www.neabigread.org/program\\_history/](http://www.neabigread.org/program_history/)> [cited 2009. 4. 20].

16) 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state.php>> [cited 2009. 4. 27].

역사회가 이미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One Book' 형식의 독서운동을 통해, TBR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카운티처럼 2006년과 2007년에 TBR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운동을 비로소 시작한 사례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The Big Read란 이름은 NEA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국의 BBC Two 방송이 2003년 10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방송한 방송 시리즈의 제목이다. BBC Two는 이 시리즈 기간 동안 웹, SMS 전화 및 인터랙티브 투표를 시행하여, 영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전문학작품을 선정하였다.<sup>17)</sup> 여기에서 최상위에 오른 책은 JRR Tolkien의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이었고, '오만과 편견' 등을 포함한 상위 21종의 책들은 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RNIB)과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NLB)에 의하여 모두 점자책과 오디오책으로도 만들어졌다. 이 BBC Two의 Big Read는 이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한 회에 세 편씩의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방송이 완료되었지만, 이후 위와 같이 투표를 거쳐 선정된 책들을 중심으로 독서토론편모임을 구성하여, 혼자서 책을 읽거나 모임에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였다.<sup>18)</sup> 이처럼 위대한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 하자는 BBC Two의 The Big Read가 이후 유사한 성격으로 진행되는 NEA의 The Big Read라는 이름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2. The Big Read의 특성

### 가. 책의 선정

TBR이 'One Book'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들 두 독서운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책의 선정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One Book'을 위해 지역사회들은 매우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는 2003년 미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한 바<sup>19)</sup>와 같이 공통된 몇 가지 요소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전국이나 지역에서 잘 알려진 작가를 고르는 것이 보다 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고, 강력한 (끌리는) 쟁점, 인물 및 주제를 갖는 것이 토론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양서여야 한다든지, 노벨문학상, 풀리처상 수상과 같은 지명도를 우선적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sup>20)</sup> 따라서 그동안 '앵무새 죽이기'나 '화씨 451도'와 같이 이른바 'One Book'의 베스트셀러라 할 만한

17) BBC, "Big Read," <<http://www.bbc.co.uk/arts/bigread/vote/>> [cited 2009. 4. 28].

18) BBC, Big Read, "The Little Guide to Book Reading: Talking BBC Big Read Books with Family, Friends, and Colleagues," <[http://www.bbc.co.uk/arts/bigread/br\\_reading\\_grp\\_pck.pdf](http://www.bbc.co.uk/arts/bigread/br_reading_grp_pck.pdf)> [cited 2009. 4. 29].

1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e Book: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2003, <<http://www.ala.org/ala/ppo/onebookguide.pdf>> [cited 2007. 1. 18].

20)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5-32. p.7

책들이 등장하였지만, 미국의회도서관의 'One Book' 웹사이트<sup>21)</sup>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특성의 수많은 책이 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반면에 TB에서는 매우 선별된 책의 목록을 지시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가 그 가운데서 책을 골라 읽도록 하고 있다. TBR을 위한 책의 선정은 "The Readers Circle"이라는 스물 두 명의 문학전문가와 문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로 구성된 패널이 수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시인이며 소설가인 Wendell Berry, 작가인 James Lee Burke, 도서비평가인 Michael Dirda,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Jim Leher가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회도서관 관장인 Dr. James H. Billington, 전 코네티컷 주의 계관시인인 Marilyn Nelson, 전 시애틀공공도서관 사서이자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을 시작했던 Nancy Pearl, 역사학자이며 전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장인 Kevin Starr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면면을 가진 도서관 및 문학계의 패널이 추천한 책을 NEA의 문학담당 직원들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책의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sup>22)</sup>

TBR은 2006년 시범사업에서 '화씨 451도', '위대한 개츠비', '앵무새 죽이기' 및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라는 네 권의 책을 지정하여 읽을 것을 권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그와 더불어 '마이안토니아', '무기여 잘 있거라', '분노의 포도' 및 '조이러 클럽'을 추가하였다. 그 후에도 매년 새로운 책들을 추가하여 2009년 6월 현재 모두 27권을 그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권장되는 책 목록은 '톰소여의 모험'과 같이 명실공히 미국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A Lesson before Dying', 'The Things They Carried'와 같은 비교적 최근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9-2010년 책 목록은 다른 나라의 저명한 작가의 대표작으로서 러시아 작가 Tolstoy의 'The Death of Ivan Ilych', Jorge H. Hernández가 편집한 멕시코 단편집 'Sun, Stone, and Shadows' 및 이집트의 노벨상 수상작가 Naguib Mahfouz의 'The Thief and the Dogs'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목록에는 'Love Medicine',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The Poetry of Henry Wadsworth Longfellow', 'The Poetry of Robinson Jeffers', 및 'The Stories and Poems of Edgar Allan Poe'라는 다섯 권의 시집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소설에서 시작된 문학적 지평을 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TBR에 선정된 책들의 주제는 다음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성장(Coming of age), 용기(Courage), 범죄와 정의(Crime and Justice), 정체성(Identity), 관용(Integrity), 상실(Loss), 사랑(Love Stories)의 일곱 개 범주에 속해 있다.<sup>23)</sup>

21) 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 전계 사이트.

22)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Catalog)*(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ovember 2008), p.1 "How Big Read Books Are Chosen," [cited 2009, 4, 29].

2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Our Books: Theme,"  
<<http://www.neabigread.org/books.php?sort=theme>> [cited 2009, 4, 20].

〈표 4〉 Big Read 책과 주제

서명	성장	용기	범죄/정의	정체성	관용	상실	사랑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	○	○				
The Age of Innocence							○
Bless Me, Ultima	○			○			
The Bridge of San Luis Rey and Our Town			○		○	○	○
The Call of the Wild	○	○		○			
The Death of Ivan Ilyich				○		○	
Fahrenheit 451		○	○	○			
A Farewell to Arms		○					○
The Grapes of Wrath					○	○	
The Great Gatsby							○
The Heart Is a Lonely Hunter						○	
Housekeeping	○			○		○	
The Joy Luck Club				○		○	
A Lesson Before Dying		○	○	○		○	
Love Medicine				○	○	○	○
The Maltese Falcon			○		○	○	
My Ántonia	○					○	○
Old School	○			○	○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		○	
The Poetry of Henry Wadsworth Longfellow			○	○	○	○	○
The Poetry of Robinson Jeffers		○		○	○		
The Shawl				○		○	
The Stories and Poems of Edgar Allan Poe			○	○		○	○
Sun, Stone, and Shadows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
The Thief and the Dogs			○			○	
The Things They Carried	○	○			○	○	○
To Kill a Mockingbird	○	○	○	○	○		
Washington Square	○	○			○		○
A Wizard of Earthsea		○		○			

현재 TBR이 채택하고 있는, 한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도록 하는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 'One Book' 독서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개인적 경험이었던 독서를 토론을 거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를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의 북블로그 'Jacket Copy'에 글을 쓰는 캐롤린 켈로그는 캘리포니아 주의 패서디나 헌팅턴 도서관에서 진행된 TBR 행사인 'The Call of the Wild' 프로그램에 관해서 쓰면서, 독서의 의미를 묻고 있다.<sup>24)</sup> 그녀는 “사람들이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무언가 유별난 신나는 책 관련 행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서가 공동 활동(communal activity)이라는 점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는 매우 개인적이고, 심지어 사적이기까지 한데, 어떻게 누군가가 온 지역사회에 알맞은 책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개별 지역의 사례를 보면 분명 한 권의 책이 갖는 의미 혹은 효과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의 켈드웰(Caldwell)은 켈드웰 공공도서관 주최로 The Big Read에 참여하여 Cynthia Ozick의 ‘The Shawl’을 읽었다.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이 책은 실제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 아기의 실제 살해사건에 기반하고 있다. 켈드웰 도서관 사서인 캐런 램보는 웨스트 켈드웰 군구(郡區) 및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 팀을 구성하여 ‘The Shawl’과 연관된 행사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사립여학교 교사들과 의논하여 이 책이 필독서가 되게 하였으며, 보이스카우트 및 다수의 종교계 지도자들과도 협력하였다. 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작은 지역사회에서 책의 주제와 유대인의 삶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sup>25)</sup>은 바로 한 권의 책이 실마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 나. 참여기관의 선정

TBR은 2006년의 시범사업 이후 매년 참여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9월-2010년 6월에 진행되는 TBR 참여기관 신청절차를 보면,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크기의 지역사회에서 대략 400여 기관(organizations)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선정 대상이 지역사회(community)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특정한 기관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선정되었던 기관의 면모는 매우 다양하여 지역의 도서관, 학교, 대학, 대학 내 특정학과나 연구기관, 문학단체, 예술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정기관의 성격이 다양하다고 해도 이들은 TBR의 단독 주관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 개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TBR에 선정된 기관은 프로젝트의 진행 규모에 따라 \$2,500에서 \$20,000 사이의 기금을 받게 되며, 다량의 고급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공받는다. 일반적으로 기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지역사회 인구: 예를 들어 인구 오만 명 이하의 작은 지역사회는 \$2,500-\$7,500 정도, 오십만 명 이상의 주요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사회는 \$7,500-\$20,000 정도가 권장됨.
- 계획된 활동 수: 행사 계획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활동 이상을 기획하는 지원자가 선호됨.
- 지원서의 전체적 강점: 선정 기준에 의거함.

24) Kellogg, Carolyn, “The Big Read is a National Page-Turner,” *Los Angeles Times*(December 15, 2008).

25) Patterson, Mary Jo, “Poised for the Next Round of Read-Ins,” *The New York Times*(March 8, 2009).

한편 TBR 참여 기관은 이 NEA를 통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이 기금을 받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다른 재원에서 일 대 일로 매칭 펀드를 조달할 것이 요구된다. 지원된 기금은 책의 구입, 강연자 비용과 여행, 임금, 광고, 행사장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sup>26)</sup> 물론 NEA가 제공하는 기금의 액수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주관하는 지역사회의 시간적, 재정적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그리 적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지역사회가 수동적으로 NEA와 같은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매칭펀드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TBR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TBR에 선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받는다:

- 독자 지침(Reader's Guide): 독자 지침은 선정된 책 혹은 시인에 대한 소개, 역사적 상황, 작가에 대한 배경, 관련 작품에 대한 정보, 토론질문 등을 포함한다. 독자 지침은 또한 몇 가지 책에 대해서는 스페인어로도 이용할 수 있다.
- 교사 지침(Teacher's Guide): 교사 지침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계획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지침은 교실에서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교사 지침은 전국영어교사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 Big Read 오디오 지침: 오디오 지침은 로버트 레드포드, 콜린 파웰, 메리-루이스 파커와 같이 저명한 예술가, 교육자, 공인들 및 에이미 텐, 레이 브래드베리와 같은 The Big Read 작가들의 논평과 함께 The Big Read 책들에서 낭독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오디오 가이드는 또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 Big Read 홍보자료: 포스터, 배너, 책갈피 등. 참여기관은 또한 전문적으로 생산된 선정 책을 위한 오디오, 비디오 홍보 서비스 공지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sup>27)</sup>

TBR 참여기관은 연례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젝트 시작 이전에 훈련을 받는다. 이 훈련에는 지역사회 파트너와 일하는 방법,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과 같이 행사 주관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선정한 책에 관하여 다른 지역사회의 참여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 권장되고, 소그룹 세션은 책 토론 및 출판사와 일하기, 학교를 포함시키기 같은 요소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한다. TBR에 선정된 지역사회 기관은 TBR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가상 조직 지침,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홍보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 다른 참여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포럼 등에 접근할 수 있다. TBR 웹사이트에서 독자 지침

2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Guidelines & Application Instructions," <http://www.neabigread.org/guidelines.php> [cited 2009. 4. 29].

2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Guidelines & Application Instructions," <http://www.neabigread.org/guidelines.php> [cited 2009. 4. 29].

이나 교사 지침 등의 자료는 일반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자료는 행사 주관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다.

#### 다. 진행과 프로그램

TBR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위하여 매우 명확한 목표와 형식을 갖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전체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및/혹은 마지막해 읽는 사람들을 독려하여 문학 독서가 직면한 하향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번하게 책을 읽는 사람들도 참여자로 환영하지만, 문학 독서를 일상적 활동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특별히 청소년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하고 있다. 이것은 'One Book' 독서운동이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점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애틀의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은 처음부터 'Reading Across Map'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여 생각을 나눔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미주리 주 캔사스시티의 'United We Read'와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가졌다. 물론 이들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독서와 토론 문화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독서를 향유하게 한다는 효과가 클 수도 있다. 반면에 TBR은 처음부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해서 그들도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TBR이 그러한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실제로 진행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TBR에 기금을 신청하는 지역사회 기관들로 하여금 행사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개막 행사(A kick-off event): 지역에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림
- 선정된 책이나 시에 관하여 적어도 한 번의 기초행사: 예를 들어, 대표적 전기작가의 강의, 패널 토론, 혹은 저자 낭독회 등
-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최소한 두 세 번의 특별 행사: 예를 들어, 책을 각색한 영화 시리즈, 선정된 시인에 관한 영화, 영화 시리즈 혹은 극화 낭독 등
- 다양한 장소에서 책이나 시인에 관한 최소한 10-50회의 토론: 예를 들어 도서관, 서점, 박물관과 같이 다양한 청중을 모을 수 있는 장소 포함

물론 실제로 계획된 행사나 활동의 수는 지역의 인구 규모와 상관관계를 갖고, 독자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TBR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들의 면모를 보면 상기한 바와 같은 요구조



건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프레즈노 카운티 도서관이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톰소여의 모험’을 읽으면서 진행하는 행사와 프로그램<sup>28)</sup>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 톰소여의 모험 낭독회(Readathon)(Sweet River Restaurant, Clovis): 공무원, TV, 라디오 진행자 및 지역명사들을 활용한 24시간 작품 낭독
- 톰소여 독서토론(Coalinga District Library, Coalinga): 톰소여의 모험 독서토론(Reedley Library, Reedley; Orange Cove Library, Orange Cove; Gillis Library, Fresno; Fig Garden Regional Library, Fresno 등)
- 톰소여 책표지 디자인(Easton Library, Easton; Mendota Library, Mendota 등): 독자들이 생각하는 책표지 디자인 및 도서관 디스플레이
- 톰소여 유치원 스토리타임(Kingsburg Library, Kingsburg 등): 유치원 해적 스토리(Fig Garden Regional Library, Fresno)
- 톰소여 상상력 (Imaginarium, Institute of Fine Arts, Coalinga 등): 톰이 좋아할 만한 노래의 가족 상상력
- (다양한 버전의) 톰소여 영화상영(Clovis Regional Library, Clovis 등); Sunnyside Regional Library, Fresno; Woodward Park Regional Library, Fresno 등); (Caruthers Library, Caruthers); (Sanger Library, Sanger 등)
- Jumping Frog 공작과 대회(Gillis Library, Fresno; Caruthers Library, Caruthers 등): 마크트웨인의 작품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 주제로 오리가미 개구리 접기와 멀리 및 높이 뛰기 대회
- 작가 Sid Fleischman과의 만남(CSUF Residence Dining Hall, Fresno): 저명한 어린이책 작가의 새 작품 ‘Trouble Begins at 8: Life of Mark Twain in the Wild, Wild West’ 토론
- 톰소여 보물찾기(Kingsburg Library, Kingsburg 등): 톰소여처럼 도서관에 숨긴 보물 찾기
- 미시시피강 살인 미스터리(Mosqueda Library, Fresno 등): 톰소여가 살던 지역의 범죄 사건과 해결
- 미시시피강을 따라(Woodward Park Regional Library, Fresno 등): Jazz Fresno의 실황연주와 더불어 재즈 역사상 미시시피강의 영향에 대한 강의
- 톰소여 빙고(Reedley Library, Reedley): 톰소여에게 영감을 받은 빙고게임
- 학생 해적 스토리(Fig Garden Regional Library, Fresno 등): 톰이 좋아하던 캐릭터인 해적을 주제로 한 스토리 듣기

28)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Community Calendar of Events,” <http://www.neabigread.org/events.php> [cited 2009. 5. 10].

- 신비한 동굴의 세계: 숨겨진 보물(Bear Mountain Library, Squaw Valley 등): 자연학자 Carey Goldstein 이 동굴의 인간역사에 관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 동굴미로에서 길을 잃다(Cedar Clinton Library, Fresno 등): 톰이 길을 잃었던 것 같은 동굴의 생태, 미로에 대한 발견
- 영화토론: 영화 속의 미국원주민(Clovis Regional Library, Clovis): Paul Kaser가 여러 편의 영화 클립을 사용하여 영화에 표현된 미국원주민에 대한 토론 인도
- 마크트웨인의 프레즈노카운티 연관성(Fowler Library, Fowler 등): 역사가 Bill Secrest Jr. 가 프레즈노카운티에 사는 마크트웨인의 친척과 친구에 대한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 마크트웨인 가족 박람회(Fair)(San Joaquin River Park, Fresno): 마크트웨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어린이 게임, 이야기, 톰소여 공작, 담 페인트칠하기 등 가족 행사
- 톰소여 뮤지컬 헌정(Piedra Library, Piedra): 민속음악가 존 아담스와 톰소여 당시의 노래와 스토리 탐구 및 싱얼롱
- 톰소여의 모험 북 클럽: 그래픽노블판(Riverdale Branch Library, Riverdale): 작품의 그래픽노블 버전을 읽고 생각을 나눔
- 마크트웨인의 유머(Fresno City College Library, Fresno: CSUF Madden Library, Fresno 등): U.C. Merced 교수인 Gregg Camfield가 마크트웨인의 위트와 유머를 논함
- 톰소여 시장(Trading Post)(Fowler Library, Fowler): 물물교환대
- 마크트웨인과의 저녁(West Hills College Theater, Coalinga): 배우 Jim Schlievert가 마크트웨인의 삶을 조명한 원맨쇼 공연
- 소녀매니아(Sawyermania)(Leo Politi Library, Fresno): 톰소여 빙고 게임, 당시의 노래 배우기와 공작 하기
- 폴리아쑤마의 묘약: 위험한 가정 치료(Fresno Central Library): 프레즈노카운티 보건국에서 위험한 가정 치료 교육. 브루스 킬레이턴이 자신의 골동품 돌팔이 의료기구 컬렉션 전시 및 토론
- 금지 도서(Clovis Regional Library, Clovis): Paul Kaser가 마크트웨인 작품 등 미국의 금서의 이유 토론
- Clovis Big Hat 축제 정보 테이블(Old Town Clovis, Clovis): 2009 Big Read 활동 안내, 마크트웨인 퀴즈, 책 경품 등
- 톰소여 올드타임 게임(Orange Cove Library, Orange Cove): Egg in the Spoon, Doggy Doggy - Where's your Bone, Jacks, Pick Up Sticks, 도미노 등 톰소여가 즐겼을 법한 게임 하기
- Fried Green Tomatoes 및 기타 톰소여 요리(Woodward Park Library, Fresno): 요리사

Michael Shackelford가 톰소여가 좋아하는 음식을 재현한 남부요리를 시연

- 톰소여 구슬치기 대회(Kerman Library, Kerman 등): 톰소여가 좋아했던 구슬치기 배우기 및 게임
- 연극 제작: 톰, 허크와 마크(Veteran's Memorial Auditorium, Fresno): 톰소여의 모험에 기반한 Terrance McArthur의 새 연극 초연
- 마크트웨인과 서부(CSUF Madden Library, Fresno): UC Berkeley의 마크트웨인 문서 컬렉션 큐레이터인 Victor Fischer가 마크트웨인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체류 논의
- 재즈의 탄생(Woodward Park Regional Library, Fresno): Jazz Fresno의 실황연주 및 재즈의 연원에 대한 강연

프레즈노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에 속한 공공도서관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곳곳에서는 상술한 것처럼 두 달 동안 사십여 개의 프로그램이 백여 차례 진행된다.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독서토론으로서 도서관서비스 디렉터가 진행하는 토론 및 문학전문가가 진행하는 토론이 거의 이십여 차례 진행이 된다. 또한 '톰소여의 모험'이라는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적 스토리, 당시의 게임, 노래 부르기, 요리 시연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금지도서 전시 및 강연, 마크트웨인과 서부, 마크트웨인의 유머, 마크트웨인과의 저녁 등 마크트웨인이라는 작가와 당시의 시대상 및 문화, 역사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밖에 이 작품을 영화화한 다양한 버전의 영화 상영, 연극 공연 등이 있는 한편, 다소 학술적 성격의 프로그램과 대중적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섞여 있다. 이처럼 '톰소여의 모험'이라는 한 권의 책을 대상으로, 혹은 이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 대학 강당과 도서관, 지역사회 공회당과 광장 등에서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떻게든 TBR에, 그리고 '톰소여의 모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이 바로 책을 읽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TBR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자극을 한번쯤은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책 혹은 독서의 의미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지역사회 파트너십

TBR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One Book'에서 지향하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상원들과의 파트너십을 맺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성공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독자에 대한 아웃리치를 확장하고, 책을 읽지 않거나 마지못해 읽는 독자층의 참여를 심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 단체 및 개인들과의 파트너를 맺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서점, 박물관, 예술단체, 군사시설, 지역 비즈니스, 상공회의소,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커뮤니티센터, 청소년 단체, 노인 센터, 교정시설, 커뮤니티 컬

리지, 대학, 사회복지기관 등 모든 가능한 기관 및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TBR에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이 자신이 도서관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독서 활동의 핵심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함을 의미한다. 사실상 앞서 예를 든 프레즈노 카운티 도서관과 같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TBR의 주관기관으로서 앞장을 서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라도 공공도서관은 시설, 장서 및 사서의 전문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주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즈노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툼소여의 모험'을 읽기로 한 일리노이 주 아이나(Ina)의 TBR 주관기관은 렌트레이크 칼리지이지만, 상당수의 행사가 인근 지역의 게일즈버그 공공도서관, 키윅 공공도서관, 브레엠 기념도서관, 워렌카운티 공공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는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오하이오 주의 매실론(Massillon)은 매실론 박물관과 매실론 공공도서관이 공동 주관으로 '순수의 시대'를 읽기 위해, 이십 여개 지역사회 기관, 단체 및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TBR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의 문학 독서 증대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TBR 프로그램 구성에 청소년, 특히 십대 소년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십대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파트너를 맺도록 하고 있다. 파트너가 되는 학교들은 TBR의 자료를 수업에 통합하고, 학교를 기반으로 한 TBR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들은 교사, 사서교사, 영어과 주임교사, 교장, 교육감 혹은 커리큘럼 전문가 등과 같은 학교 인사들과 프로그램 계획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시킬 필수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 시에서는 Ohio's Young Audiences of Northeast Ohio(YANEO)라는 단체가 워렌빌 하이츠 중학교(Warrensville Heights Middle School)와 파트너가 되어 '앵무새 죽이기'를 읽었다. 여기에서는 오하이오 주의 읽기 능력 표준점수 이하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학생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낭독회, 독서토론, 하퍼 리 전문가인 찰스 쉘즈의 방문, YANEO 무대예술가가 학교에 상주하는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9)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미국 NEA가 주관하는 The Big Read 독서운동의 시작 배경, 책의 선정, 참여기관의 선정, 진행 및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십 등의 제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BR

2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Blog, "Roadshow and Tell, May 7, 2008, Cleveland, Ohio," <<http://www.arts.gov/bigreadblog/>> [cited 2009. 5. 10].

은 'One Book'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여, 지역사회에 이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문학 독서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TBR이 2006년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불과 삼년 만에 오백여 지역사회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독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특히 우리나라의 독서운동 상황에 시사하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TBR은 연방정부 기금 및 다양한 재단, 기관,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확보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많은 지역사회들이 NEA의 CEO인 Dana Gioia가 강조한 것처럼 “NEA가 아니었다면 지역사회들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재정 지원을 얻음”<sup>30)</sup>으로써 독서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의 브리바드 카운티 도서관은 2007년 TBR로 ‘앵무새 죽이기’를 읽음으로써 처음으로 지역사회 독서운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14개의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들(Western North Carolina)이 2004년부터 “Together We Read”를 함께 진행하며 매년 책을 읽어왔으나,<sup>31)</sup> 2007년에는 자체적으로 “On Agate Hill”을 읽는 것과 더불어 TBR을 통해 ‘앵무새 죽이기’를 다시 읽었고, 2008년에는 아예 TBR로 ‘마이 안토니아’를 읽었다. 앞의 경우처럼 그동안 이런 형태의 지역사회 독서운동을 해보지 않았던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면, 뒤의 경우처럼 자체적인 독서운동을 하고 있었어도 TBR을 통해 책을 읽는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TBR이 기금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반드시 자체적 매칭 펀드를 조달하게 함으로써 NEA라는 외부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게 했다는 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나 여러 도시의 한 책 읽기 운동들이 각각 서울문화재단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후속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참여 인원수와 같이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다. TBR도 물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목적이 “업무를 인도하고, 향후 새로운 참여기관들에게 최선의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참여기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2)</sup>

둘째, TBR은 도서관을 독서운동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TBR을 주관하는 NEA는 “새로운 것 및 기존의 예술에서 탁월성을 지원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예술을 가져다주며, 예술 교육에서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는 공공기관”<sup>33)</sup>이다. 이러한 NEA가 도서관의 역할을 핵심에 둔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BR에 반드시 도서관 혹은 도서관을 파트너로 한 비영

30) CNN, “The ‘New’ NEA: Reading Gets Bigger,”  
 <<http://edition.cnn.com/2007/SHOWBIZ/books/06/25/nea.bigread/index.html>> [cited 2009. 5. 14].

31) Western North Carolina, “Together We Read,” <<http://togetherwewread.org/>> [cited 2009. 5. 15].

32)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Final Report,”  
 <<http://www.artsmidwest.org/files/Final>> report sample FINAL\_0.doc [cited 2009. 5. 15].

3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bout Us,”  
 <<http://www.nea.gov/about/index.html>> [cited 2009. 5. 15].

리 지역사회 기관들만이 지원할 수 있게 한 데서 나타난다. 말하자면 도서관은 모든 독서활동의 중심이므로 TBR과 같은 지역사회 독서 권장 이니셔티브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선일보사가 2009년에 진행하는 ‘책, 함께 읽자, Reading Together’와 같은 캠페인에서 공공도서관들은 “기업, 서점, 출판사, 카페, 제과점... 종교 시설, 개인주택의 거실...” 등과 같은 하나의 “낭독 공간”<sup>34)</sup>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TBR이 추진하는 것은 “독서” 그 자체이고, 상기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선일보사가 추진하는 것은 “낭독”에 초점을 맞춘 독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책 및 독서와 관련된 전국적 활동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문인협회, 한국연극협회와 같은 기관, 단체들이 개입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단체, 혹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어떤 공공도서관도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도서관의 미약한 위상 혹은 불투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의 CNN 방송이 NEA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멋진 예술 쇼나 현대무용공연과 달리, TBR은 실제로 “기분전환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한 권의 책에 머리를 기울였을 뿐, 미국의 여느 일상과 같다”고 지적한 것<sup>35)</sup>은 TBR과 같은 독서운동이 공공도서관이라는 지역사회 기반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TBR의 성공적 확산은 막대한 연방기금의 투입과 더불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사회 기반시설로서의 존재감과 독서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TBR은 ‘One Book, One Community’라는 잘 발전된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모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One Book’ 독서운동의 모형은 지역사회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의 선정부터 모든 행사의 진행과정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도록 한 것이다. 말하자면 도서관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일방적 혹은 제한적으로 책을 읽자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범위를 도서관 바깥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책을 읽거나 토론함으로써 참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갖고 지적으로, 예술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에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TBR은 이것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보면 TBR에 참여하는 많은 지역사회가 이전부터 자체적인 ‘One Book’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TBR 참여 시에는 그 프로그램 이름을 반드시 ‘The Big Read’라고 불러야 한다는 조건을 지역사회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Together We Read”가 몇 년 간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의 이름을 2007년과 2008년

34) 조선일보, “책 읽기 문화 캠페인, 책, 함께 읽자. 캠페인 소개.”  
 〈<http://livingroom.chosun.com/reading/info.html>〉 [cited 2009. 5. 14].

35) CNN, “The ‘New’ NEA: Reading Gets Bigger.”  
 〈<http://edition.cnn.com/2007/SHOWBIZ/books/06/25/nea.bigread/index.html>〉 [cited 2009. 5. 14].

에는 TBR로 바꾸었다가, 2009년에는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가 자체적 독서운동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TBR은 1998년 이후 지난 십 년 동안 이미 미국 전역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이러한 'One Book' 독서운동의 모형을 따른다고 공언하였고, 전반적 진행 과정을 그대로 채택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많은 지역사회들이 새로운 유형의 독서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TBR은 개별 지역사회가 각기 마련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표준적 독서 활동 자원을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BR은 문학, 학술, 교육 및 문화계 전문가들이 작성한 독자 지침, 학생을 위한 교사 지침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One Book' 독서운동에서라면 개별 지역사회가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을 부분을 절감하게 해준다. 모든 작품의 독자 지침은 서문, 역사적 배경, 작가 소개, 기타 작품 및 각색, 토론 질문, 기타 참고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사 지침은 십주 동안의 교육 계획, 프로젝트 아이디어, 에세이 주제,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십주 동안의 교육 계획은 매 주 해당 작가와 작품에 관련된 전기, 역사와 문화, 인물,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상징, 주제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주일마다 한 작품에 대하여 라디오쇼를 만들어 방송한다. 'The Heart is a Lonely Hunter' 라디오쇼의 예를 들자면, 28분 58초짜리 라디오쇼는 NEA 대표인 Giola가 직접 해설하고, 음악가인 Blake Hazard, 저널리스트인 P.J. O'Rourke, 배우인 Mary-Louise Parker, 작가인 Gore Vidal 등과 같은 명사들이 본문을 낭독하거나 작품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6)</sup> 이처럼 TBR을 통해 고급의 전문적 문학 참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재정적 지원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힘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BR은 지난 삼년 동안 오백여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큼 많은 기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단기간 내 미국 국민들의 독서율을 증진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SPPA의 여러 보고서들에서 인식되었던 독서율의 심각한 하락 추세가 TBR의 시작 후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뿐이다. 하지만 TBR의 확산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이 독서운동이 이미 미국의 지역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 나간 'One Book' 지역사회 독서운동 모형의 장점을 최대한 취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 독서를 확산시키고자 했고, 무엇보다도 연방정부 기금을 일방적으로 살포하기보다 지역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3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ig Read, "The Heart is a Lonely Hunter, Radio Show-Listen!," 2009. <<http://www.neabigread.org/books/lonelyhunter/radioshow.php>> [cited 2009. 5. 17].

